

예수교연합성결회

만민중앙교회

MANMIN CENTRAL CHURCH



대성전 조감도

1982.10.10. 창립

위임 목사 **이 재 록**
 Senior Pastor : Dr. **Jaerock Lee**

www.drlee.or.kr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말씀대로 사는 교회 믿고 순종하는 교회

전 교인 기도제목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3)

■ 항상 기도제목

- 1) 위임목사 2)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3) 구제

■ 2022년도 기도제목

- 1) 불가능이 없는 믿음 (마가복음 9:23)
- 2) 거룩한 자녀 (데살로니가전서 4:3, 디모데전서 4:5)
- 3) 아버지 기뻐하시는 성전 (마태복음 21:12~13)
- 4) 재창조의 권능 100% (에스겔 37:4~10)

교회를 섬기는 분들

부 목 사/ 이수진(당회장 직무대행)
(남) 안성현 조대희 조혁희 조수열
주현철 정규원 김영식3 장성식
정현진 이풍근 임학영 박광현
이석규 정진영 조성도 노영진
(여) 이미경 최형자 이미영 이성숙
황금란

선교 목사/ 페르난도 보르본

협동 목사/ 문신현

전 도 사/ 김영순 권영남 차경숙 최영신
이영인 황미경 최성숙 서덕분
박금미 오인숙 곽윤진 윤영자
임금선 황미선 조은영 강순길
정영임 임해숙 문순미 장정미
류순주 고경아 최시은 김진주

평신도 교역자/ 김복례 권순희

기도원 교역자/ 김영석3

지교회 교역자/ 문태규 정철수 이행엽 박홍영
김요한 강승표 박형렬 박재영
최제수 서진범 김창숙 박종대
황병덕 오환준 김혜경 차전환
강영식 이성철 윤진영 김정오
김상휘

해외선교사/ 아프리카: 정영호, 김중훈
폴 무사파리 날완고(협력), 자코 네마 사카텐다(협력)
일 본: 정경태, 도끼꾸니 야스히로, 고마쯔 미끼, 도끼꾸니 미야고
중 남 미: 페루·콜롬비아 장정연, 온두라스 에스테인 할달
러 시 아: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미 국: 남상송, 마크 바질레르
캐 나 다: 이성일
영 국: 제인 음폴로고마, 데이빗 무카사
독 일: 이바울
몰 도 바: 알렉산드르 따바라누, 비탈리 따바라누
대 만: 김경희
필 리 판: 조찬형, 성 속, 김은자, 김주범
인 도: 김삼휘
몽 골: 발차릭 무레브, 양흐바아르 간바타르
말레이시아: 지정훈
인도네시아: 자바르 H 시라이트, 메르나 탐바
파키스탄: 윌슨 존 길, 타리크 지야
중 동: 보나 시무아탈라 은심바, 알렉산드르 우라조프
에스토니아: 그리고리 콜레스트

원로 장로/ 이정호
장 로/ 반성건 이동림 최중태 이주월 추오동 이시헌 박광호 유익선 최정수
오세영 박영준 정안권 박노철 김왕기 박현재 박경춘 최을호 김대석
성낙훈 김홍만 김규식 송왕근 김진희 송석길 이강준 장영규 이익석
임영석 김종태 김용석 정택수 조효용 윤성식 김기호 박홍열 박영갑
김봉완 홍명일 김준호 이강복 김용덕 윤창수 이재환 권태봉 채윤석
김석환 진교성 황병현 박성준 최병승 이덕형 최희승 허은범 정태찬
고광규 임종서 서희석 신상문 정성규 김부삼 정성식 이상원 마문국
마수용 이용석 김한구 김순오 마문복 유승열 손영관 윤부열 박종웅
송영현 이성익 정영호 정용필

명예 장로/ 김영선 김세원 윤석재 강재관 김영조 이성철 마광희 장세웅 서근중
최신일 한병용 나종규 이기완 한홍렬 김재규 한광현 심상식 오성준
하문복 허영목 배철효 김영남 서상기 문경진 박진무

협동 장로/ 김영호 김진형 김남민 정용재

지 휘 자/ 임마누엘 성가대: 김한구 살롬 성가대: 박종웅
나 사 렛 성가대: 이영철 금빛 성가대: 이영철
흰 들 성가대: 서승현 膩시오케스트라: 김한구

반 주 자/ 민연홍 김서영 이현미 손은혜 김선자(오르간) 김보석

* 표는 일어서서

개회송영	주 악
기 원	사 회 자
* 개회찬송 57장 1절	다 같 이
* 성시교독 24번	다 같 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자복기도	다 같 이
찬 송 453장	다 같 이
기 도	황금란 목사
성경봉독 로마서 8:12~16	사 회 자
찬 양 햇빛을 받는 곳마다/ 임마누엘성가대 닛시오케스트라	
설 교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3)	당회장님
기 도	다 같 이
환자기도 영상	당회장님
찬 송 만민 찬양 61장	다 같 이
헌 금	다 같 이
광 고	사 회 자
봉헌기도	사 회 자
새교우환영	사 회 자
* 축 도 영상	당회장님

(옆 사람과 인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주일 저녁예배

주일 오후 3시

사회/ 장성식 목사

대표기도	장정미 전도사
성경봉독	욥기 9:27~10:6/ 사회자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살롬성가대 · 닛시오케스트라
특송	여은진 자매
설교	욥기 강해(22) - 욥의 무지③/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사회/ 정현진 목사

대표기도	차경숙 전도사
성경봉독	데살로니가전서 5:15, 21~22/ 사회자
찬양	금빛성가대
설교	모든 것을 선의 관점으로 보자/ 조수열 목사

금요 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11시

사회/ 강승표 목사

대표기도	정진영 목사
성경봉독	요한계시록 12:10~17/ 사회자
찬양	임마누엘성가대 · 닛시오케스트라
설교	요한계시록 강해(49)/ 당회장님

2-9회 5차 다니엘 철야

시간/ 매일 오후 9시 ~ 11시 (금요일은 제외)

인도/ 이복남 원장

기간/ 8월 22일(월) ~ 9월 11일(주일)

주제/ 변화와 생명, 성전이전

새벽 예배

※ 추후 공지 시까지 새벽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주 예배 위원

예배	사회	대표기도
주일 대예배	이미경 목사	최종태 장로
주일 저녁예배	박광현 목사	최영신 전도사
수요 예배	노영진 목사	권영남 전도사
금요 철야예배	-	-

강단헌화
갤러리



제 목 :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2)

본 문 : 롬 8:12~16

오늘은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오는지, 그 두 가지 유형에 관해 알아보고 성령의 주관을 받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기다리던 버스가 와서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버스를 타기 싫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 버스를 타지 않으면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더 기다려야 하는데도 타지 않았지요. 그래서 다음 버스를 탔는데, 가다 보니 앞에 간 버스가 큰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이 성도는 바로 성령의 주관을 받은 것이지요.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앞서 도착한 버스가 어떻게 될지 미리 아시고 사랑하는 자녀가 그 차에 타지 않도록 주관하셔서 큰 위험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이처럼 놀랍게, 또 섬세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십니다. 지켜주시고 행통한 길로 인도하시지요.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뤄지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인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 육에 있으면 자기 마음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마음먹고도 실천하지 못하지요. 모든 일이 마음먹고 계획한 대로 된다면 성공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킨다는 마음으로 계획하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자기 속마음을 자기도 모릅니다. ‘마음은 원이로 되’ 하는 말은 육의 사람이 쓰는 말이지요. 그래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앞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영을 주관하시면 앞일을 알고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다.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과 인도를 받을 수만 있다면 삶 속에 축복이 넘칩니다.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창대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행통한 길, 축복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

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일터가 항상 평안하지요. 축복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주어진 사명도 잘 감당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 중에는 아버지 하나님이나 주님의 음성, 천사의 음성을 듣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성들을 듣는 것은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체험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성령을 통해 교통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성령의 주관을 받는 것이지요. 성령의 음성이나 주관은 다른 음성들과 달리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즉 마음 안에서 들려옵니다. 성령의 음성이나 주관은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 거하시는 성령이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오는지, 성령의 주관, 인도를 받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올까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두 가지 유형

첫째는, 성령이 마음에 떠올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경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보혜사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전반절에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기 유익을 위해 여러분에게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이때 “달라고 하면 주라”, “원수도 사랑하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등 하나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설교 내용이 떠오르기도 하지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입니다.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 무장이 잘되어 있는 만큼, 또한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만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가 더 쉽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이상 읽고, 한 구절 이상 암송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둘째는, 성령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마음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경우입니다.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해 주시거나 말할 바, 행할 바를 지시하시지요. 예를 들어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 시므온에 대해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했습니다.

성령이 알려주신 대로 그는 노년에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직접 보았지요. 당시는 아직 성령이 마음에 임하지 않은 때였지만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으므로 성령의 지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나 일꾼들도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의 권세 있는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성령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했지요.

또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교회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할 일을 지시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고 말씀해 주셨다고 했지요.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성령이 한 인격체로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을, 이런 성령을 의지해야 함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처럼 한 인격체로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혹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요. 악한 영이 역사한 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악용하여 스스로 높아지거나 성도들을 미혹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요.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진리에 비추어 잘 분별해야 합니다.

첫째 유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갓 주님을 영접한 초신자도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면 어렵지 않지요. 그러나 이 둘째 유형의 음성은 첫째 유형보다 듣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마음에 진리가 임한 사람, 죄를 벗고 성결 된 사람이라야 밝히 들을 수가 있지요. 앞서 말씀드린 안디옥 교회의 일꾼들도 금식하며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했을 때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성령의 주관을 받는 것’이란?

‘성령의 주관을 받는 것’은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도해야겠다.’, ‘금식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누구를 구제하고 싶다.’, ‘누구에게 전도해야겠다.’ 또는 ‘심방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요. 이런 성령의 주관대로 행하면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도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등 영의 열매가 맺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했습니다. 마음에 소원을 품는 것도, 그 소원대로 행하는 것도 스스로 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주관을 받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주관하심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주관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로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성령의 주관을 받았지요. 얼마 후에는 이것이 확실한 주관임을 환상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 달라.”고 바울에게 청하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마게도냐 땅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성도가 생겼지요.

소아시아는 3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여 에베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은 언제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아사기에 적절한 때에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을 주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때로는 유대인들 앞에 드러내어 전하셨고, 때로는 숨어서 전하셨습니다. 그때그때 성령의 주관을 받아 행하셨지요. 예수님께서서는 백 퍼센트 성령의 주관 가운데 사역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의 주관을 받아 행했더니 형통했다는 간증을 많이 하십니다. 사업할 때나, 집이나 땅 등을 매매할 때 성령이 강하게 주관하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형통했다는 것이지요. 성령이 주관하셔서 교통사고, 화재 등 큰 위험에서 지킴 받았다는 간증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 이 말씀은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듣고 마음에 양식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 인도받는 것에 대해 설교하라고 해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지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 인도받아 여러분 스스로가 어떠한 일든지 해결할 수 있으니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양식 삼으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 인도받는 데 있어서 능력이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목 :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 삶

본 문 : 누가복음 13:31~33

오늘은 임직예배를 맞아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 삶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난해구절이므로 오직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영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딤후 3:16).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의 길을 가신 후 결국에는 온전한 승리를 거두셨는지 알려 주시는 말씀입니다.

1. 예수님을 죽이려 한 헤롯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왕의 아들로써,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본인의 악행들을 세례 요한이 지적하자 그를 눈엣가시처럼 여겨 잡아 가두었고, 결국 체면치레를 위해 참수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사람들의 죄와 불의를 책망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줄 알고 두려워서 예수님도 죽이려 합니다.

이런 정황 속에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와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하고 알려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삼 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서는 왜 헤롯을 여우에 비유하셨을까요? 간사하고 교활하며 악하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속성을 여우에 빗대신 것입니다.

여우는 다른 동물이 이미 파 놓은 굴을 빼앗는 교활한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주인이 굴을 잠시 비웠을 때 배설물로 냄새를 피워서 자기 것으로 만들지요. 또 살아있는 동물을 사냥하기도 하지만 이미 죽은 동물의 시체를 먹기도 합니다. 묘지나 야산에서도 자주 발견되고 밤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무덤을 파헤쳐서 사람의 시체까지 먹는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우가 ‘포도원을 허는 짐승’, ‘거짓 선지자’ 등등 해로운 존재로 나옵니다. 이렇게 교활하고 부정한 여우처럼 헤롯은 간교하게 예수님을 사로잡아 해하려 했기에 그를 여우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으로도 부족하여 오직 선만 행하신 예수님까지 죽여 없애고

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으며 흉악의 결박에 묶인 사람들을 풀어 주셨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보이며 살아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셨지요.

이렇게 행하신 일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충분히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4:11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며 교만입니다. 마음에 조금이라도 선과 진실이 있다면 백성들에게 유익만 주는 예수님을 폄박하고 죽이려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롯은 자기의 유익과 안위를 지키려다 보니 예수님을 죽이려 혈안이 된 것이지요.

이런 일은 만민의 역사 속에서도 항상 보아 왔습니다.

마가복음 16:20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르는 권능의 역사들로 늘 보장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제단을 이단이라 정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욕심과 욕신의 생각에 눈이 가려져 하나님의 역사들을 듣고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애매히 비난하고 대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여우가 포도원을 헐 듯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헐려고 하는 악이지요. 해롯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까지 해치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된다면 이는 분별력이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에 혹여 해롯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며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미혹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자칫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예루살렘 안에서의 죽음

예수님께서 해롯이 교활하게 위협해 오자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삼일에는 완전 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눅 13:32~33)

여기서 ‘오늘과 내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사역하시는 기간’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겠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중단 없이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 삼일에는 완전하여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

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인류 구속의 섭리가 온전히 이뤄진다는 말씀입니다. 즉 해롯이 아무리 위협한다 해도 예수님은 사역을 계속 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신 후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합니다. 죽음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 아무리 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다 해도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고전 15:17, 롬 10:9).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을 때 영생과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이로써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구원에 이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인류 구속의 섭리가 완전해졌기에 이를 가리켜 ‘제 삼일에는 완전하여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 볼 때 예수님은 물론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도, 신약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예루살렘 밖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즉 예루살렘 안에서만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는 영적인 의미로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곧 말씀 안에서만 죽게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과 만나는 곳이고, 그 마음과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곳이지요. 즉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는 성입니다.

이사야 23에 “여호와와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나라” 말씀한 대로, 예루살렘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는 말씀은 결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살고 죽는다’라는 뜻이지요.

참 선지자는 어떠한 시험 환난과 핍박이 몰려와도,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세가 유혹한다 해도 결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살고 죽습니다. 만약 선지자라 하면서 다시 말해 주의 종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밖에 거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 거짓 종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다가 죽으셨습니다. 계명을 어기 시거나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어떤 악을 행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아무 흠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세상 권세자가 위협한다 해도,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핍박한다 해도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든 일들을 이뤄 나가셨습니다. 그 길이 핍박과 고난의 길이어도, 결국 죽음의 자리라 해도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기쁨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래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말씀하신 대로 가야 할

길을 오직 아멘과 예로 행하셨습니다. 이로써 중국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으셨지요.

3.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오직 말씀 안에서 살고 죽어야

이는 예수님이나 선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죽어야 합니다.

당회장님께서도 지금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 오는 동안 위협을 많이 받으셨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표로 삼아 달려 오셨습니다.

악한 자들이나 세상 권세자들이 때로 이 제단을 핍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지켜 주셨습니다. 마치 죽은 것 같을 때도 있었으나 결국 축복과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는 당회장님께서 오직 말씀 안에서만 사셨고, 죽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고자 하셨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한다 해도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비진리와 타협하거나 세상 어둠과 짝하며 살아가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를 죽여 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것처럼 육신에서 비롯된 '자기 욕심', '자기 생각' 등이 죽어야 하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곳으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인정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아 있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 자신의 생각이 살아 있다면 결코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없지요.

그러므로 무익한 '자기'를 온전히 벗어 버리고 오직 말씀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 다해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임직자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10월, 당회장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결코 예루살렘을 즉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원의 섭리를 완전케 하셨듯이 여러분도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십시오. 예루살렘 밖, 곧 진리 밖으로 나가거나 오히려 속이고 해치는 '여우'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는 살든지 죽든지 그 삶이 영생으로 이어지지만, 예루살렘 밖에서의 삶과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질 뿐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고 죽는 삶을 택함으로 장차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읽을 말씀 / 전도서 1:1~3

외울 말씀 / 전도서 12:13

참고 말씀 / 열왕기상 9:4~9

교육 내용 /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므로 사람의 본분을 행하여 영원한 천국을 얻게 한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아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번영을 누렸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며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 받을 정도로 부강했고, 백성들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각종 우상을 숭배하며 산당까지 지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솔로몬의 아들 대(代)에 가서는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1.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축복받은 솔로몬 왕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백성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일천 번이나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과연 솔로몬 왕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그는 자기 장수나 부귀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으로서 수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며 그에게 지혜는 물론 부귀영화까지 보너스로 주십니다.

열왕기상 4장 29~30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말씀한 대로 많은 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지혜와 막강한 국력을 기반으로 솔로몬 왕은 주변 지역을 정복해 가고 7년에 걸쳐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합니다. 이를 매우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 약속하시지요.

열왕기상 9장 4~5절에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만일 그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끊어 버리며,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 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왕상 9:6~7).

2.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죄를 범한 솔로몬 왕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엄청난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닌 강대국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통일 왕국을 다스리며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지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아버지 다윗의 믿음에서 떠나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을 말씀하셨지만(신 17장), 솔로몬은 후비와 빈장만 해도 무려 1천 명을 두지요(왕상 11장).

솔로몬 왕은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기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겼으며 심지어 국고를 털어 곳곳에 이방 신당들을 세우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겼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했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외면하시자 사방에서 적들이 쳐들어왔고, 결국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자기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자기 마음에 즐거운 것이 라면 다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마음을 채워 주지 못했지요.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마음껏 세상 쾌락을 누리 보았더니 이 세상이 참으로 살 만하더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 곧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될 뿐이라.” 고백했지요. 영혼의 만족은 물질이나 권세, 세상 정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해와 같이 빛나던 솔로몬 왕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 인생이 허무해졌습니다.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도 바다를 채울 수 없듯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았지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취하며 자기 마음을 채우려 해도 소용없고, 평생 수고하여 공로를 쌓아도 중국에는 죽음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혜가 있고 학식이 높으며 명성을 날린 사람도 그 이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결국에는 죽습니다. 평생을 수고하며 쌓은 것도 죽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더 이상 누릴 수 없으니 헛될 뿐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마치 안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3. 헛된 것을 버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려면

이처럼 헛된 것을 체험한 솔로몬 왕은 말년에 이르러서야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깨우치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록한 전도서 12장 13~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교훈하였지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려면 사람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은 크게 ‘하라, 하지 말라, 버리라, 지키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사람의 본분을 지키고 헛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지요.

세상 사람은 영원한 하늘의 것을 목표 삼지 않고, 변질하고 소멸하는 이 땅의 정욕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여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사람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에 썩지 않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며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을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갚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랑하여 향락과 물질과 명예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 물질, 세상 위주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깨우쳐 주셨습니다(눅 12장).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지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시지요. 즉 생명을 거둔다면 부자가 쌓아 둔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과 노력, 지혜와 정성, 모든 관심을 이 땅의 헛되고 헛된 것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 평가 및 적용하기

1.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셨을 때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2. 솔로몬이 믿음에서 떠나 죄를 범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3.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외워 봅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하고 그 ()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이니라”

● 금주 과제

〈지난주 설교 요약, 구역공과〉 읽고 복습하기.

● 알고 넘어갑시다!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명하신 말씀(신 17:16~19)

1. 말[馬]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라.
2.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라.
3. 은금을 자신을 위하여 많이 쌓아 두지 말라.
4. 율법서를 평생 옆에 두어 읽고 지켜 행하라.

이재록 목사 저서 인터넷 구입 안내

- ◆ 생명력 넘치는 이재록 목사의 저서를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 1544-1900)
- 영풍문고 (www.ypbooks.co.kr ☎ 1544-9020)
- 예스24 (www.yes24.com ☎ 1544-3800)
- 인터파크 (book.interpark.com ☎ 1577-2555)
- 우림북 (www.urimbooks.com ☎ 02-818-7241)

교구 편성표

본 교회는 지역별로 교구를 형성하였으며
매주 목요일 남장년, 금요일 여장년 구역예배가 있습니다

총괄대교구장: 이수진

1대대교구장: 이미경

대 교 구 장: 조혁희

1교구장	최성숙	구로구(가리봉동134-130번지)
2교구장	권영남	구로구(가리봉동 89-133번지, 구로3동 125-252번지, 구로3동 1123-125, 1274번지)
3교구장	장정미	구로구(가리봉2동, 구로본동, 구로1동, 구로2동, 구로3동 256, 773-851, 1271, 1278-1279번지, 구로4동, 구로5동, 신도림동)
4교구장	최영신	구로구(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천왕동, 향동, 은수동, 궁동)
5교구장	이석규	영등포구
6교구장	류순주	양천구, 강서구, 김포시

2대대교구장: 조대희

대 교 구 장: 조수열

7교구장	이성숙	금천구(가산동)
8교구장	김영순	금천구(독산동, 시흥동)
9교구장	최영자	광명시(철산동, 광명동, 노은사동, 옥길동)
10교구장	안성현	광명시(하인동, 소하동, 가학동, 일직동, 학은동)
11교구장	조은영	동작구(삼도동, 사당동, 동작동, 흑석동, 대방동, 노량진동)
12교구장	임학영	동작구(신대방1동, 신대방2동)
13교구장	정진영	관악구
14교구장	서덕분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3대대교구장: 이미영

대 교 구 장:

15교구장	문신현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16교구장	박금미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17교구장	차경숙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과천시
18교구장	황미경	안산시, 시흥시
19교구장	박광현	부천시
20교구장	이영인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21교구장	이풍근	인천시

중국대교구장: 황금란

중국1교구장	정규원	중국동포 구로구
중국2교구장	오인숙	중국동포 서울시(구로구 제외), 경기도
중국3교구장	윤영자	중국인
해외교구장	문신현	국내거주 외국인 성도

부설 기관

만민기도원

교파를 초월하여 전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이 난치, 불치병 등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갖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있습니다.

원 장/ 이복님
문의전화/ 02-818-7102

알려드리는 말씀

본 교회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교회 소식

- 당회장님의 저서 「영혼육(하)」가 우간다 루간다어 전자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당회장님 신앙칼럼이 「기독교신문」, 「시사뉴스」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 만민뉴스 한글(975호), 영어(725호), 중국어(599호), 말레이시아어(9호)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만민뉴스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 2022년 영적 성장 프로젝트 1차 전 성도 당회장님 저서 읽기를 진행합니다.
①주님의 자취(상) ②주님의 자취(하) ③젖과 꿀이 흐르는 땅 ④거역된 삶과 순종의 삶
⑤일곱교회 ⑥네 영혼이 잘됨같이 ⑦공부 잘하는 비결
※ 기간: 9월 1일(목) ~ 11월 30일(수)까지(3개월)
- 제21회 말씀퀴즈대회 본선 및 결선이 9월 4일 오후 6시에 개최되며, 인터넷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본선 진출자 명단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으니 확인하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연합성결신학교에서는 성서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3대대 대교구장 이미영 목사를
초청하여 “성결복음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2학기 개강예배 겸 특강을 진행합니다.
※ 일시: 9월 3일(토) 오후 3시 ~ 4시 30분
※ 장소: 신학교 3층 예배실
- 파키스탄 선교사 윌슨 존 길 목사의 아들 하룬 길 편잡주 의원 가족이 개인 업무차
입국하였습니다.
- 9월 추천도서는 「주님의 자취(상)」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림북 홈페이지 www.urimbooks.com)

- 당회장님 저서를(주보 맨 뒷장 참고)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e-book)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드립니다.

강단헌화/ 2세대 12교구(꽃꽂이 봉사: 예배국 미화부, 시설관리국)

— << 교구별 현장예배 장소 >> —

일 정		신학교 예배실	사택 예배실
8월 28일	대예배	1~6 교구	11~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저녁예배	7~10 교구	중국대교구
9월 4일	대예배	7~10 교구	1~6 교구
	저녁예배	중국대교구	11~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9월 11일	대예배	중국대교구	7~10 교구
	저녁예배	11~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1~6 교구
9월 18일	대예배	11~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중국대교구
	저녁예배	1~6 교구	7~10 교구

지성전	주 소	담당/연락처
강 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검 단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구 리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차경숙 전도사 010-2290-1856
부 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 112, 5층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북 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72 남송빌딩	문신현 목사 010-7736-9333
분 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세신빌딩 401호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수 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이영인 전도사 010-4820-1700
안 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황미경 전도사 010-9636-7977
영종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박금미 전도사 010-4710-9649
이 천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인 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일 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 B/D	박금미 전도사 010-4710-9649

GCN,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주요 프로그램 안내

8/28 일

- 00:00 - '요한일서 강해 24' 이재록 목사
- 05:00 - '욥기 강해 9' 이수진 목사
- 14:00 - '우리 삶의 등불 107' 이재록 목사
- 18:30 - '주를 향하여' 임학영 목사

8/29 월

- 00:00 - '요한일서 강해 25' 이재록 목사
- 07:05 - '요한계시록 강해 23' 이재록 목사
- 08:00 - '창세기 강해 55' 이재록 목사
- 13:00 - '요한일서 강해 42' 이수진 목사
- 15:30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14' 이재록 목사
- 19:30 - '우리 삶의 등불 46' 이재록 목사

8/30 화

- 01:00 -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6' 이수진 목사
- 08:00 - '창세기 강해 56' 이재록 목사
- 10:20 -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 3' 이재록 목사
- 12:05 - '3차 영혼욕 9' 이재록 목사
- 14:00 - '요한일서 강해 25' 이재록 목사
- 15:30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15' 이재록 목사
- 18:00 - '욥기 강해 10' 이수진 목사
- 19:00 - 구역 공과 7

8/31 수

- 00:00 - '요한일서 강해 27' 이재록 목사
- 01:00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2' 이재록 목사(영상설교)
- 05:00 - '요한계시록 강해 47' 이재록 목사(영상설교)
- 12:05 - '3차 영혼욕 10' 이재록 목사
- 13:00 - '순전 1' 이재록 목사
- 15:30 - '공부 잘하는 비결 1' 이재록 목사
- 17:00 - '요한계시록 강해 25' 이재록 목사
- 18:00 - '우리 삶의 등불 53' 이재록 목사

9/1 목

- 01:00 -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 삶' 이수진 목사
- 07:05 - '요한계시록 강해 26' 이재록 목사
- 08:00 - '창세기 강해 58' 이재록 목사
- 10:20 -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 1' 이재록 목사
- 12:05 - '3차 영혼욕 11' 이재록 목사
- 13:00 - '순전 2' 이재록 목사
- 14:00 - '요한일서 강해 27' 이재록 목사
- 19:20 - '젖과 꿀이 흐르는 땅 11' 이수진 목사

9/2 금

- 08:00 - '창세기 강해 59' 이재록 목사
- 10:20 -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 2' 이재록 목사
- 14:00 - '요한일서 강해 28' 이재록 목사
- 17:00 - '요한계시록 강해 27' 이재록 목사
- 19:00 - 천지창조의 섭리 22
- 20:40 - 페루 연합대성회 3

9/3 토

- 07:05 - '요한계시록 강해 28' 이재록 목사
- 10:00 - '빛 가운데 행할 때의 축복' 이재록 목사
- 12:05 - '3차 영혼욕 13' 이재록 목사
- 19:40 - 우리 삶의 등불 108

※ 이 편성표는 방송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문의: 02-824-7107, 1577-2073 / webmaster@gcntv.org

※ KT olleh tv 882번 및 유튜브 GCN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 서비스 안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전화로 듣고
환자를 위한 기도를 전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02) 830-5320

-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_ 10분
- 운전을 위한 기도_ 20분
- 3분 설교_ 30분
- 환자 기도_ 40번, 41번(영어), 42번(영어), 43번(중국어)
- 찬양_ 50, 60번
- 하루를 마치는 기도_ 70분

인터넷 예배 안내

예배실황이 KT olleh tv 882번, 유튜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전국 및 전 세계로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 다국어 방송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 생중계 시간 주일 대예배_ 오전 11시 30분
주일 저녁예배_ 오후 3시/ 수요일예배_ 오후 7시
금요일예배_ 오후 11시
다니엘 철야 기도회_ 매일 오후 9시
- ▶ 기타 녹화 방송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manmin.org
- 교회 모바일 홈페이지 m.manmin.org
- GCN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www.gcntv.org
- GCN방송 모바일 홈페이지 m.gcntv.org

- Aug. 28(Sun.)

(Hebrews 11:1) “Now faith is the assurance of things hoped for, the conviction of things not seen.”

- Aug. 29(Mon.)

(Isaiah 60:1) “Arise, shine; for your light has come, And the glory of the LORD has risen upon you.”

- Aug. 30(Tue.)

(Isaiah 60:2) “For behold, darkness will cover the earth And deep darkness the peoples; But the LORD will rise upon you And His glory will appear upon you.”

- Aug. 31(Wed.)

(Isaiah 60:3) “Nations will come to your light, And kings to the brightness of your rising.”

- Sep. 1(Thu.)

(Psalm 103:4) “Who redeems your life from the pit, Who crowns you with lovingkindness and compassion;”

- Sep. 2(Fri.)

(Psalm 103:5) “Who satisfies your years with good things, So that your youth is renewed like the eagle.”

- Sep. 3(Sat.)

(Proverbs 27:1) “Do not boast about tomorrow, For you do not know what a day may bring forth.”

금주의 성경구절

8월 28일(주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히 11:1)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8월 29일(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사 60:1) 여호와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8월 30일(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사 60:2)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8월 31일(수)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취는
(사 60:3)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9월 1일(목)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시 103:4)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9월 2일(금)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시 103:5) 네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9월 3일(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잠 27:1)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전 세계 영혼을 깨우는
이재록 목사 저서 안내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이재록 목사 간증 수기
멈추지 않는다
나의 삶 나의 신앙 ①, ②/ 이재록 목사 자서전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천국 (상·하)
지옥
영혼옥 (상·하)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주님의 자취 (상·하)/ 요한복음강해
고린도전서강해 (상·하)
하나님의 씨/ 요한일서강해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상·하)/ 음기강해
고백/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100편
눈물/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젓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정복사
일곱 교회/ 이상적인 교회 지침서
깨아라 이스라엘/ 마지막 때 이스라엘 예언서
신앙인의 기본
지혜/ 자기개발서
공부 잘하는 비결/ 자기 주도 학습법
성경과 권능 시리즈
(2주년속 특별 부흥성회 설교집)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입문편 1
내가 사행하리니/ 입문편 2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입문편 3
와 보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실천편 1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실천편 2
권능/ 실천편 3
근본의 소리를 발하라/ 실천편 4
육과 영/ 핵심편 1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핵심편 2
하나님은 빛이시라/ 핵심편 3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핵심편 4
네 영혼이 잘됨같이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성경 인물 시리즈 1
나의 택한 아قام 나의 빛 아브라함의 자손아/ 성경 인물 시리즈 2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성경 인물 시리즈 3
엘리아를 나뉘게 보내리니/ 성경 인물 시리즈 4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주재설교 모음 1 믿음편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 2. 응답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은/ ... 3. 예배편
사랑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 4. 기도편
치료하는 영약이요/ ... 5. 치료편
하나님의 법도/ ... 6. 심경편
참된 복을 좇는 자/ ... 7. 팔복편
거역된 삶과 순종의 삶/ ... 8. 열재양편
기이한 일
희한한 능
등불/ 칼럼 모음
지혜의 샘/ 잠언칼럼 모음
생명의 샘/ 베네딕도 칼럼 모음
만화로 보는 지혜의 샘 (상·하)/
사명과 헌신/ 헌신예배 설교 모음 1
말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 ... 2
영원한 것을 위하여/ 방송설교집 1
겉옷을 내어 버리라/ ... 2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 3
옛새 동안의 만나 (상·하)/ 설교자료, 구역공과
간추었던 만나 1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들/ 성도 신앙 간증집
주 예수를 믿으라/ ... 2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 3
하나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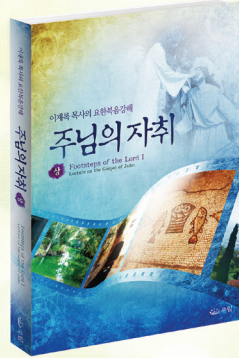
9월 추천도서

이재록 목사의 요한복음강해

주님의 자취

상

Footsteps of the Lord
Lecture on the Gospel of John



2022. 9. 1.(목) - 9. 30.(금)

홈페이지: www.urimbooks.com | 블로그: blog.naver.com/urbooks | 페이스북: facebook.com/urbooks17

내 삶의 등불/ 독후감 수상집
갈릴리아 꽃보다 붉은 사랑이여/ 성자순례 회보집
학습 세례 문답서

한디북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참된 복을 좇는 자/ 팔복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십자가의 도
믿음에도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천국 (상)

이동용(주니어 Bible Study)
믿음에도 분량이 있어오
하나님의 법도/ 심경
성령의 열매를 맺어오
사랑은 율법의 완성 ①, ②
참된 복을 좇는 어린이 ①, ②
십자가의 도 ①, ②
선
공부 잘하는 비결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기도

출발! 아름다운 천국여행
7일간의 설리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학생용(청소년 Bible Study)
젓과 꿀이 흐르는 땅 ①, ②
선
믿음의 분량
지혜와 명철
공부 잘하는 비결
주님의 자취 ①, ②
사람이 다스려야 하는 몸의 행실
십자가의 도 ①, ②
만나Time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유아 유치용(키즈 Bible Study)
공부야 놀자!
나는 예수님 닮은 기도대상!
선

-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구입
- 전자책 구입: 국내 주요 서점 리디북스, 아마존닷컴(amazon.com), Google Play, iBookstore
- 아마존닷컴(amazon.com)에서 종이책 구입 가능

홈페이지 www.urimbooks.com, 블로그 blog.naver.com/urbooks, 페이스북 facebook.com/urbooks17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23)

정기 예배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1부 대예배	오전 10:00	각 성전
주일 2부 대예배	오전 11:30	각 성전
주일 저녁 예배	오후 3:00	각 성전
빛과소금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9:00	각 성전, 북부·강동지성전
빛과소금 요식업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11:00	각 성전
금요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11:00	각 성전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7:00	각 성전
새벽예배	매 일 오전 5:00	각 성전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화요일 오후 8:30	각 성전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수요일 오후 9:00	각 성전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토요일 오후 4:00	각 성전
아동주일학교(주일예배)	대예배/ 오전 11:40 저녁예배/ 오후 1:30	

※ 예배시간 및 관련 문의 : 만민중앙교회 기획실 ☎ 02-818-7236